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2호 [주체 제23264호] 주체99(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사설

경희극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대고조의 산올림이 울리지 않았고, 이것은 승리, 승리를 향하여 계속 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의 발현이다.

우리는 오늘의 총천한 기세를 늦추지 말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를 다시한번 분발하여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이것이 당과 혁명의 요구이며 오늘의 대고조시대의 부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김일성장군을 경희극 《산올림》은 인신교양적의와 감화력이 매우 큰 명작이다. 여기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삶과 투쟁의 심오한 진리가 새겨져 있으며 세기를 주름잡으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역력 기상이 맥박치고 있다.

넘어가는 장군님께서는 불과 반년 남짓한 기간에 경희극 《산올림》을 여러차례나 보아주시고 전국적인 순회공연까지 조직해주시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경희극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일해나가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온 나라에 《산올림》 열풍이 세차게 일어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상관념과 투쟁기풍, 일본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산올림》은 정형적대극과 뚜렷하고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며 우리 인민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전체 인민이 《산올림》의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울 때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더욱 거센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어나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조국통일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해야 한다. 지난 반년 남짓한 기간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과 경공업,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놀라운 혁신적성과들은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새것을 지향하여 완강하게 투쟁해나가는 곳에서는 거창한 변혁이 일어날수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오늘 승리의 직선주루에 들어섰다. 우리 조국이 최강의 정치군사력과 주체공업의 위력,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소련처럼 일떠서는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웅대한 리상과 목표를 내세우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분발해야 할 격동적인 시기이다. 천

군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조전건설을 견고결속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드린 불길을 마음을 안고 농장에 진출하여 알곡추출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면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주체농민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선동사업에 힘있게 벌려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는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어 집단안에 혁명적기적과 광망이 초일치해 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를 인민생활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추추동해가고있는 선동원들가운데는 혁명적투쟁을 앞장서서 선동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선동원 김덕남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선동원들도 있다.

경상기관차대 운전대 2중대 선동원 김원일, 평양역 려적중대 출로작업반 선동원 배명실, 순천구동공작구 제2작업반 선동원 주영준, 만포방사공작구 제2작업반 선동원 주일남, 평성합성가죽공작구 3직장 도로역작업반 선동원

후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조전건설을 견고결속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쁨을 드린 불길을 마음을 안고 농장에 진출하여 알곡추출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면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주체농민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선동사업에 힘있게 벌려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괄시키는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어 집단안에 혁명적기적과 광망이 초일치해 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를 인민생활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공세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고추추동해가고있는 선동원들가운데는 혁명적투쟁을 앞장서서 선동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선동원 김덕남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선동원들도 있다.

석탄중산투쟁의 불길높이 계속 전진

개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에서

개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전진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분천탄광에서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전투가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있으며 조양, 신림, 자강도공급탄광에서는 새 경쟁, 새구역개발투쟁이 적극 추진되어 석탄중산의 확고한 전망이 엿보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각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어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원회에서는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열광하여

로 고향투쟁을 행복의 락원으로 꾸린 《산올림》의 주인공들의 애국의 세계를 따라배워야 한다. 애국은 자기 일터, 자기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헌신이고 투쟁이다. 자기 땅, 자기 고향을 제일이던 어떤 사람도, 자기 고향투쟁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가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자신들의 창조적로동으로 쏘아붙이고 버림받던 산도 보배산으로 전변시킨 경희극 《산올림》의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는 누구나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된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다면, 참된 애국의 뿌리가 되려면 이들을 따라가야 한다. 투쟁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산올림》 주인공들의 총정 의 세계를 따라배워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당의 뜻과 구상을 전면적으로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산올림》의 주인공들은 당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었다. 당에서 가르쳐준대로만 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는 것, 당에서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철리이다. 하기에 그들은 당 제4차대회를 알곡 100만중산으로 맞게 하라는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알곡중산투쟁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었다.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이 《산올림》의 주인공들은 오늘을 내다보다 투쟁한 선군들과 열정을 내다보다 남들이 제자리걸음을 할 때 천리마의 기상으로 열걸음, 백걸음을 앞장서 내달리고 남들이 눈앞의 성과에 만족할 때 더 높은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새 생활을 설계해나간 창조적인 투쟁기풍, 통이 큰 일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의 본보기로 된

안 선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분조원들을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더 밀어주기 위한 선동활동을 분조원들에게 벌려나감으로써 분조의 알곡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3중대 선동원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선동원들이 김철의 호소마라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양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경체선동을 앞장서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기수, 전조배이라는 크나큰 공기와 영예를 간직하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화선식 선동활동은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처럼 높이 빛나게 하는 선동원들의 투쟁을 더 큰 위훈으로 힘있게 고추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헌신적인 안목과 진취적인 사업태도, 창조적일 본세를 지니고 무엇을 하나 해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나가며 받은 자기 땅에 든든히 붙이고 눈을 세게 내다보며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끊임없이 비약하고 혁신해나 가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는 《산올림》 주인공들의 높은 정신세계이다. 집단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힘과 지혜가 모자라면 힘과 지혜를 합치고 뒤떨어진 사람들을 개조하고 이끌어 모두가 고향투쟁의 참된 주인으로, 로력헌신자로 자라게 하는 것이 《산올림》 주인공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경희극 《산올림》을 통하여 승고한 리상과 목표를 지니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전진하는 것은 《산올림》 주인공들의 승고한 투쟁기풍이다.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우리의 투쟁목표는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군은 누구나 웅대한 뜻과 리상, 높은 창조정신을 지니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발을 벌리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천리마시대의 인간들이 《산올림》의 주인공들은 오늘을 내다보다 투쟁한 선군들과 열정을 내다보다 남들이 제자리걸음을 할 때 천리마의 기상으로 열걸음, 백걸음을 앞장서 내달리고 남들이 눈앞의 성과에 만족할 때 더 높은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새 생활을 설계해나간 창조적인 투쟁기풍, 통이 큰 일꾼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의 본보기로 된

모든 일군들은 《산올림》의 주

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결속도 함께 하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제1번수가 되어야 한다. 선군시대 일군이라면 누구나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자기 고장, 자기 단위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곳, 장군님의 정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젊음을 희생하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혁명군대의 담력과 기상, 본래로 온 나라에 강성대국건설의 산올림을 더욱 높이 올려야 한다. 오늘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 속도도 인민군대에서 창조되고 후손대대에 빛날 기념비적창조물도 인민군대가 일떠세우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우리 식의 창조정신도 인민군대에서 나오고있다. 인민군인들은 최첨단과학기술과 수도의 10만세대 살림건설을 비롯한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새기고 모든 초소, 모든 전투장소에서 대충적용용주의,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오늘 경희극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는 데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일군들이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심장에서부터 비약의 산올림이 울려야 온 나라에 대고조의 폭풍이 휘몰아칠 수 있다. 경희극 《산올림》에 보여주시는 바와 같이 일군들이 리상과 각오, 실천력이 높으면 천리마를 타고 앞서나가게 되지만 일군들이 제자리걸음을 하면 대오의 락오자가 되고만다. 모든 일군들은 《산올림》의 주

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결속도 함께 하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제1번수가 되어야 한다. 선군시대 일군이라면 누구나 《산올림》의 주인공들처럼 자기 고장, 자기 단위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곳, 장군님의 정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젊음을 희생하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대고조전투쟁의 새 소식

희천발전소 발전설비생산성과 확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최첨단 발전설비 생산투쟁에 모범 발전설비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내달려나감으로써 분조의 알곡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3중대 선동원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선동원들이 김철의 호소마라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양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경체선동을 앞장서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기수, 전조배이라는 크나큰 공기와 영예를 간직하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화선식 선동활동은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처럼 높이 빛나게 하는 선동원들의 투쟁을 더 큰 위훈으로 힘있게 고추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기술강국의 청춘들답게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재능, 기개를 남김없이 펼쳐야 한다. 청춘의 자서전에 불멸의 위훈을 새기겠다는 결심을 품고 피라는 사색과 열정을 버리며 삶의 순간순간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내재하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비약의 산올림이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원들과 당일군들의 역할을 비약히 높여야 한다. 경희극 《산올림》은 당조직원들과 당일군들이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한 분출시켜 나가는 총공기, 가속적적역할을 다해나갈 때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일어날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리상과 강행군정신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대고조전군에 펼쳐나선 행정경제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생산자대중을 적극 이끌어주고 떠밀어주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원들은 청년들의 산올림에 대한 실효성모임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영예로 참가자, 위훈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령도자가 벽을 울리던 강산울 전강시커머이 땅우에 강성대국승리의 산올림이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모두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대혁신, 대비약의 산올림을 높이 울리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질풍같이 내달리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발전설비생산성과 확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최첨단 발전설비 생산투쟁에 모범 발전설비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내달려나감으로써 분조의 알곡생산량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덕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3중대 선동원 김학철동무를 비롯한 많은 선동원들이 김철의 호소마라 혁명적대고조에 펼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양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경체선동을 앞장서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기수, 전조배이라는 크나큰 공기와 영예를 간직하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들의 화선식 선동활동은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추처럼 높이 빛나게 하는 선동원들의 투쟁을 더 큰 위훈으로 힘있게 고추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조선기적 달성하면 한반도가 신동양강대국이 된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서 —

본사기자 장철일 찍음

장천땅과 더불어 길이 전할 은혜로운 사랑의 서사시

아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자신께서 농촌경리부문을 지도하기 위하여 협동농장들에 찾아다닌것만 하더라도 수십만리는 될것이며 농장원들을 만나 대화한것만 하더라도 수만명이 될것이라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그러할 우리 수령님께서 사들구려 장천남해전원협동농장만도 수무차떼까지 찾으셨었다.

지난날 농사가 안되는 봄은 진흙투성이 《불운촌》으로 불리우며 남해는 아예 씨도 못 뿌리던 장천땅.

그러하던 고장이 오늘과 같이 수도의 민음직한 남해생산지리로

잊지 못할 46년전 겨울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장천땅을 처음으로 찾으신것은 지금으로부터 46년전인 주제 53 (1964)년 1월 대소환수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이었다.

어느 해결부령 수도의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장천협동농장 (당시)을 찾으신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장마을의 한 집에 들리시어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따듯이 보살펴주신 후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어 농장의 지난해농사현황과 분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때 그 자리에는 18살의 나이런 농장기수처녀도 있었다.

정날 얼마나 뵈고싶어 그리던 아버이수령님이신!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장에 도착하시었을 때 그는 승용차에서 내리시는분을 눈여겨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수령님계시! ...)

그는 겁장음같이 없는 흥분으로 하여 저도모르게 《아버이수령님!》하고 부르며 기쁨에 넘쳐 수령님께로 막 달려갔다. 그녀는 농장기수처녀를 품에 따듯이 안아주시는 아버이수령님께서 농장원들은 다 구역을 대신 조직한 회의에 가서 없고 대신 자기가 관리위원회에서 직임을 서고있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작은 주인을 만났나니 저 반갑다고 하신다니 언제부터 농장에서 일하게되고 물으시었다. 농장기수처녀는 청년들을 바다와 농촌으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지난해 5월에 농장에 진출하였다고 씩씩하게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전면되고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꽃피어나기까지는 얼마나 가슴뜨거운 력사와 사연이 깃들여있는것이던가.

아버이수령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장천땅을 찾으시며 농장원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이곳 농장이 당의 농업정책을 앞장서도록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나날은 우리가 얼마나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이를 수령으로 모시고있었으며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산천도 사람도 어떤 변혁을 이룩하였는가를 뜨겁게 배우고있었다.

가 꾸밈없이 말씀드리는 한 농장의 실태를 놓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지극히 안색을 표시하시었다.

농장기수처녀가 농장에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분배해 농장원들이 빈 봉투를 받는다는것을 말씀하셨을 때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몸서리 가사아프신듯 벽에 등을 기대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시었다.

《수령님! 제 그만...》

아버이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자책감으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은 미어지듯 하였다. 수령님의 피로와하시는 모습에 그는 더 참지 못하고 활짝 울음을 터지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그녀는 농장기수처녀의 등을 두드려 달래시며 고무장갑을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은 낫은것을 짓부르고 씨앗을 참조하며 항상 어둠이 된 일애 앞장서야 하오. 청년들이 사외주인건설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야 하오.》

농장의 한 처녀가 말씀올리는 농장의 현형을 수침에 하나하나 적으시던 그 세시간.

그렇게 날이 펴 저물 때까지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러시고 자신께서 장천을 책임지겠다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며 앞으로 농장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전국의 앞장 선 농장으로

주제 63 (1974)년 1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농업대회가 열리었다.

그날 대회에 참석하신 아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여성관리위원장을 친히 대회장으로 부르시었다.

그는 장천협동농장 (당시)의 관리위원장이였다.

그때 그는 얼마전에 해산한것으로 하여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이수령님께 모 든것을 사실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고 자각하고 농장의 실태를 솔직하게 빠짐없이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농장기수처녀가 조금전의 이런 일들을 돌이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는데 농장의 분배정형을 알아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 문득 그에게서는 길을 둘러시며 동무는 분배를 얼마나 받았는가고 물으시었다. 순간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난해도 농사를 잘 짓지 못하였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눈보라치는 길을 떠나가신 그날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올 때였다.

장천사람들은 참으로 곱같은 일에 접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밤새 많은 쌀과 영농기계,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농장에 보내주시었던것이다.

그날 장천땅에서는 아버이수령님의 은정속에 결산분배가 다시 진행되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해방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일이었다.

결산분배에서는 모든 농장원들에게 한해동안 먹고도 남을 쌀과 함께 봉투가 불룩하게 많은 현금이 차례 되였다.

그날 장천땅에서는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모든 농장원들에게 한해동안 먹고도 남을 쌀과 함께 봉투가 불룩하게 많은 현금이 차례 되였다.

하지만 장천사람들이 그때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아버이수령님께서 장천리를 다녀가신 그길로 저녁식사로 건넌신체비상회의를 소집하시어 농장을 시급히 일떠세를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뒤떨어진 농장들때문에 아픈 마음을 터놓으시면서 너싱들의 겨울목도리에 이르기까지 농장원들의 생활상문제를 구석구석 다 헤아려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 이 세상에 수령님 같은분은 정녕 없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수령님의 이 은정을 눈에 흘어 들어가도 잊지 않고 마음을 잘 지어 다니는 공심을 끼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뜻깊은 그날의 결산분배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매는 위대한 농촌해방의 발로와 더불어 이 땅에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새 력사가 바야흐로 도래하던 시기였다.

장천땅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불어오신 전변의 새봄이 소리치며 울리고있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소개하시면서 농장기수처녀의 가슴에도, 한쌍을 장천땅에서 농사일로 늘이는 농장원들의 가슴에도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기어오르게 고장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림을 맹세하 활활산처럼 타르시었다.

어찌 장천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으며 어제날의 이름없던 농산기수가 23살 꽃나이에 한겨 농장을 책임진 일꾼으로 자라난 사연을 말할수 있었으랴.

참으로 장천땅의 포진 하나, 살림집 하나, 난양창고 하나, 온실 하나에도 장천사람들을 잘살게 하고 이 곳 농장이 전국의 앞장 선 시대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이수령님의 심혈과 로고가 깃들여있는것이였다.

중자도 건설수 없었던 논밭을 개량하여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분수식발판수체계와 영양단지를 받아들여 남해농사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 뒤주식작고로 자체의 힘으로 선창으로 짓고 그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할수 있게 된것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세히 가르쳐주고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덕이었다. 그리하여도 수령님께서

그 모든 성과를 장천사람들에게 들려주시였을뿐 아니라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나주시신 한 농장기수처녀의 생활을 료해하시어 그에게 《도대어 일애 앞장서서 당정책을 관철하는 모범적인 동무입니다.》라는 분애를 넘치는 치하도 해주시었다. 그리고 자신께서 처음 만나보신 그날 기대하시었던대로 미더운 농촌혁명가로 자라난 그에게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농산기수를 거쳐 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던 그를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시었다.

그렇게 사랑과 믿음을 담아 키우신 새 세대 농업일꾼이 대회에서 하는 토론을 주되게 들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남해를 공급하려는 당의 의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고 있는 장천사람들의 정신세계와 투쟁정신을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 동무는 토론한 내용들을 글로 써놓으면 좋겠는데...》

《이 동무는 단발머리처럼부터 협동농장에 나가 10년나 일 하였습니까.》

이 동무는 장천협동농장에서 농산기수, 작업반장을 거쳐 이제는 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 동무는 국가계획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시집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난 10년동안 당앞에 다진 결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였습니까.》

순간 녀성관리위원장의 눈앞이 어찌 얼마나 생생히 떠올랐다.

어느새인가 또다시 장천벌을 찾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도시민들에게 보낸 남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팔뚝을 휘둘러 뛰다니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수고를 헤아리시어 그에게 승용차가 있으면 어떻겠는가고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때 관리위원장은 고마움을 금치 못하며 수령님께 승용차보다 화물자동차가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운 실어다가 남해밭에 벌 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 마음이 기록해 수령님께서는 농장에 화물자동차를 보내주시어 농장에서 남해농사를 더 잘 짓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장천의 남해포진들에 보기 드문 작황이 펼쳐졌던 주제 58 (1969)년 가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농장에 나오시어 손수 배추 한통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12kg이던 정찰 대안하고, 남해농사를 정말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수도시민 1인당 차례질 남해량을 친히 가능해보시었다. 그러시며 남해농사를 더 잘해서 수도시민들에게 남해를 더 많이 보내주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때로부터 2년후인 주제 60 (1971)년 6월 장천땅에서는 계단식남해재배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보여주기사업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조직해주시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준비된 동무라고, 누구는 남해가격을 올려달라

고 하였는데 그 동무는 수도시민들에게 남해가 잘 공급되면 되니 남해가격은 낮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의 평범한 농산기수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의 선구자로서, 어엿한 농업일꾼으로 성장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온 나라에 깃들지던 1974년 그해의 그 겨울에는 대외정세를 나서는 장천땅의 녀성관리위원장의 앞가슴에서는 녀성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위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보여주기사업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조직해주시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준비된 동무라고, 누구는 남해가격을 올려달라

고 하였는데 그 동무는 수도시민들에게 남해가 잘 공급되면 되니 남해가격은 낮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의 평범한 농산기수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의 선구자로서, 어엿한 농업일꾼으로 성장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온 나라에 깃들지던 1974년 그해의 그 겨울에는 대외정세를 나서는 장천땅의 녀성관리위원장의 앞가슴에서는 녀성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위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보여주기사업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조직해주시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준비된 동무라고, 누구는 남해가격을 올려달라

고 하였는데 그 동무는 수도시민들에게 남해가 잘 공급되면 되니 남해가격은 낮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의 평범한 농산기수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의 선구자로서, 어엿한 농업일꾼으로 성장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온 나라에 깃들지던 1974년 그해의 그 겨울에는 대외정세를 나서는 장천땅의 녀성관리위원장의 앞가슴에서는 녀성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위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보여주기사업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조직해주시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준비된 동무라고, 누구는 남해가격을 올려달라

고 하였는데 그 동무는 수도시민들에게 남해가 잘 공급되면 되니 남해가격은 낮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의 평범한 농산기수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의 선구자로서, 어엿한 농업일꾼으로 성장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온 나라에 깃들지던 1974년 그해의 그 겨울에는 대외정세를 나서는 장천땅의 녀성관리위원장의 앞가슴에서는 녀성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위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보여주기사업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조직해주시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준비된 동무라고, 누구는 남해가격을 올려달라

고 하였는데 그 동무는 수도시민들에게 남해가 잘 공급되면 되니 남해가격은 낮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의 평범한 농산기수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의 선구자로서, 어엿한 농업일꾼으로 성장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온 나라에 깃들지던 1974년 그해의 그 겨울에는 대외정세를 나서는 장천땅의 녀성관리위원장의 앞가슴에서는 녀성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진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위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그 보여주기사업은 아버이수령님께서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이곳 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성과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몸소 조직해주시는것이였다.

그때 수령님께서 장천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준비된 동무라고, 누구는 남해가격을 올려달라

고 하였는데 그 동무는 수도시민들에게 남해가 잘 공급되면 되니 남해가격은 낮게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시면서 언제나 당의 의도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는 이곳 관리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제날의 평범한 농산기수가 당의 농업정책 관철의 선구자로서, 어엿한 농업일꾼으로 성장한 감동깊은 이야기가 온 나라에 깃들지던 1974년 그해의 그 겨울에는 대외정세를 나서는 장천땅의 녀성관리위원장의 앞가슴에서는 녀성영웅메달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열의와 국민소비품을 더 많이

해산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대표 사회정신을 받고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높이며 편직물생산에서 양상을 일으키고 있다. 뜻깊은 10월에 년간 공업총생산계획을 완수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해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불길들 더욱 높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지난 1월초 어느날이었다. 공장에서는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을 받고 여러

러 생산공정을 실려가 있게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난 시기에 비해 편직물의 가치수가 늘어나고 그 생산량을 훨씬 늘일 목표를 세운데 맞게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꾸리는것은 올해전투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였다. 대한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배치를 새롭게 하여 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매 공정마다에서 창조적 열정을 다 발휘하여 기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작업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갔다. 1층의 대한기들을 2층으로 옮기는 전투가 시작된 어느날이었다. 대한기를 권양기로 한대대 올리다니니 어둠이 깃들기 시작됐던 누구도 일터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하루 빨리 편직물생산에서 혁신을 안아오려는 불타는 열정이 이들의 가슴속에 차넘치

고있었던것이다. 누군가가 지면 해불이 전투장에 타면지기 시작하자 작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들을 밝히며 떠오르는 불길은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새차게 타번져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여러대의 대한기를 옮겨 설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사흘나, 사흘반이 흘러 설비시설전투가 끝나고 공장건물도 더욱 환하게 변모되었다. 드디어 자기들의 혁신의 맘이 스민 일터에서 기대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며 갖가지 편직물을 생산할 때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얼마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간직되었던가.

공장의 로동자들은 작업마다 사회주의경쟁의 불을 걸고 더 많은 편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었다. 공장의 일군들이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통이 큰 목표, 전투적인 일본새

해산 편직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진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들에서 기름작물을 많이 심어 먹는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방문기 혁신의 자랑 넘치는 일터

평양 창광 공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경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누구나 높은 기술기능의 소유자들로

작주 직물 공장에서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결의 목표 실현을 근기있게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국가 책임 일군들

조선중앙방송창설 65돐기념 중앙방송위원회 예술소조공연 관람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창설 65돐기념 중앙방송위원회 예술소조공연이 6일 민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되었다. 국가책임일군들, 우당위원장,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당, 행정기관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시 이야기 《백두산3대장군과 조선의 방송》, 합창 《4천만은 수평을 노래합니다》, 혼성4중창과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설화시와 노래 《은혜로운 그 품을 노래합니다》, 너성6중창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합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등의 다채로운 작품들이 울렸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 주체방송이 걸은 자랑찬 로정과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사상과 의지를 천만민들의 심장마다에 심어주고 그들의 혁명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선의 전초병,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살며 투쟁할 방송일군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공연은 시작부터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붓대와 마이크를 어깨에 틀어잡고 당과 수령의 위엄을 충직하게 받들어 보람찬 연륜활동을 벌려가고있는 방송원들과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의 크나큰 긍지와 행보를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북제창 《공격전이다》, 설화극 《천복이와 만길이 <도화선>》, 선동이야기 《자비를 모

우리 나라 립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선수권 쟁취 결승경기에서 우즈베끼스팀을 2:0으로 다승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립이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였다. 결승경기에서 일본팀을 물리치고 선수권대회결승경기에 진출한 우리 립은 오스트랄리아팀을 2:1로 이긴 우즈베끼스팀과 대결하였다. 7일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속에 우리 나라 립과 선수권대회최후국인 우즈베끼스팀사이의 결승경기가 진행되었다. 우리 선수들은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여 경에 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열의안고 기세충진하여 경기에 출전하였다.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발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의 많은 땀을 흘려온 우리 선수들은 자신만만하게 경기를 운영하였다. 그들은 주체국립으로서의 유리한 조건과 큰 키를 리용하여 완력적으로 경기를 하는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완강한 방어와 드센 공격을 결합하여 좋은 득점기회를 얻어내어 마련하였다.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진 전반전은 서로 득점이 없이 끝났다. 후반전에서 우리 팀은 승리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2, 3인전형에 의한 중점면락과 볼의직접 역습속공으로 상대방에 맹공을 펼쳤다. 10분 조광선수가 후반전 32분경 우측에서 넘겨진 공을 11분 리파일선수가 들이치며 강하게 차넣어 귀중한 첫 골을 넣었다. 우리 팀은 주도권을 장악하고 선수호상간 협동을 강화하면서 상대방의 방어를 무너뜨리 압박하였다. 후반전 39분경 9인 장역철선수가 문구역으로 편락한 공을 조광선수가 단번차기로 두번째 득점을 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선수는 경기속도를 더욱 높이고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법을 받아들인 보람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에서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렁이에 의한 유기농법을 받아들인 보람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에서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의 맘을 많이 흘려야 인민들에게 더 많은 편직물이 차례질수 있으며 올해를 인민생활대고조의 해로 정해준 당의 높은 뜻을 실현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각은 기념비미술의 기본 형식인것으로 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주제미술발전이 뚜렷한 자국을 새긴 한 조각가가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시대의 기념비를 창조하는 길에서 한생을 빛내인 만수대창작사 조각가였던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오대형 동무.

그는 조각가로 근 50년간 일해왔다. 그 나날 그는 만수대대 기념비와 천리마동상, 보천

수령의 역사를 후손만대에

1970년대 초 오대형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0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만수대대 기념비창조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은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만수대인덕에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는 이력사적인 사업을 놓고 오대형동무는 젊어오르는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백두의 실현중속에서 강도 일제와 싸워 조국을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소서 우리의 존엄을 지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 어머니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인민의 값높은 삶과 행복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의 앞에는 어머니수령님을 몸가에서 보듬고 헌성의 지침을 받아안던 일이 다시 펼쳐졌다.

주제 50 (1961)년 4월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어머니수령님을 모시고 천리마동상제작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시대의 기념비와 더불어 빛나는 예술가의 참된 삶

만수대창작사 조각가였던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오대형동무

가하는것은 더없는 영광이고 행복이었다. 기념비를 일떠세우는 데서 선차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인 기념비 총형성안과 부주제군상들의 구성작업을 맡게 된 그는 학술연구부터 착실하게 하였다. 집으로 오갈 때나 휴식할 때 그의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있었다. 정열적인 노력으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풍부한 내용으로 안팎면의 대기념비형성안과 부주제군상구성전제안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만수대대기념비뿐만아니라 왕제산과 삼지연의 대기념비들과 당장기념비,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비를 비롯하여 수많은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에서 중핵적역할을 맡아한 오대형동무의 진지한 창작적태도를 보여주는 이런 사실도 있다.

삼지연대기념비의 부주제군상인 《속영》편을 맡아가지고 구성안과 인물형상을 탐구하던 그는 어느날 배낭을 꾸려가지고 백두산자락으로 떠났다. 배낭속에는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있었다. 그것을 읽으며 그는 항일유격대의 숙영지자리를 찾아 백두밀림을 헤쳐나갔다. 그 나날들의 귀중한 체험은 오대형동무로 하여금 후날 밀림의 밤 우동불기에서 유격대원들이 부르는 사랑가에서 금시 울려나올만큼 깊고 함양진정의 표현이 흐르는 창조적로정을 거쳐야 하는 창작적태도를 보여 주었다.

오대형동무는 자기의 한 창작수행에 이렇게 했다. 《조각작품의 영원한 생명력은 다름아닌 거기에 깃든 창작가의 념이다. 조각가의 창작활동은 피라는 노력과정이며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조각의 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려운 창조적로정을 거쳐야 하는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안아들이지 않으면 념을 심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자기의 창조물에 담았다면 그러한 예술가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대형동무는 창작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창작품들에 영원한 수명과 넉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열적인 조각가였다.

오대형동무가 천리마동상제작에 참가하였을 때 창작집단장은 그에게 천리마의 꼬리부분

진행태세를 안으시고 밝게 웃으시는 군복입은 어머니님의 환한 모습이 최상의 경지에서 완성되게 되었다. 그러럼 쓰거운 총성성과 열정을 안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정숙종합관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념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비롯하여 여러상의 영상작품들을 새로 모시는 중대한 과업이 오대형동무에게 맡겨졌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계시어 김정숙동무는 군복입은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시였지. 어머니께서 제일 사랑하신 꽃은 조진의 진달래고...》

그는 항일의 념성영웅, 백두의 너장군을 우러러따르는 인민의 념원을 생각하며 사색에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

블라디미르

을 형상할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안았다. 한달음에 천리를 난다는 천리마의 속도와 힘을 나타내는 데서 꼬리가 차지하는 몫은 매우 중요하였다. 《꼬리형상을 어떻게 하여야 천리마의 머리와 몸통, 다리 등에 넘치는 힘찬 기백과 비약적인 속도감을 더해줄수 있었는가?》

오대형동무는 밤낮으로 모태기린 끝에 말발굽자를 찾았다. 말발굽자의 모습을 받아 그는 손잡같이 달리는 말의 꼬리부분을 유수하게도 하고, 꼬리사건을 찍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끝에 그는 마침내 말이 최속으로 달릴 때의 꼬리모양을 정확히 포착하게 되었으며 몸체에서 수평선을 이루면서 라선형으로

뒤로 힘있게 내뻗힌 말꼬리의 형태를 찾아내어 천리마형상에 구사함으로써 시대의 기념비 천리마동상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그러럼 쓰거운 총성성과 열정을 안고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정숙종합관학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념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비롯하여 여러상의 영상작품들을 새로 모시는 중대한 과업이 오대형동무에게 맡겨졌다. 《어머니수령님께서 계시어 김정숙동무는 군복입은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시였지. 어머니께서 제일 사랑하신 꽃은 조진의 진달래고...》

그는 항일의 념성영웅, 백두의 너장군을 우러러따르는 인민의 념원을 생각하며 사색에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

블라디미르

을 형상할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무겁게 받아안았다. 한달음에 천리를 난다는 천리마의 속도와 힘을 나타내는 데서 꼬리가 차지하는 몫은 매우 중요하였다. 《꼬리형상을 어떻게 하여야 천리마의 머리와 몸통, 다리 등에 넘치는 힘찬 기백과 비약적인 속도감을 더해줄수 있었는가?》

오대형동무는 밤낮으로 모태기린 끝에 말발굽자를 찾았다. 말발굽자의 모습을 받아 그는 손잡같이 달리는 말의 꼬리부분을 유수하게도 하고, 꼬리사건을 찍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끝에 그는 마침내 말이 최속으로 달릴 때의 꼬리모양을 정확히 포착하게 되었으며 몸체에서 수평선을 이루면서 라선형으로



실험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나간다. —청진의학대학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그날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고

피현군 총렬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피현군 총렬협동농장은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이다. 가령 처절했던 전희의 나날 총렬땅을 찾으신 어머니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유훈을 받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운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농장이 번창하게 일손을 다그쳤다. 그러하여 모내기기간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으며 알곡생산이 한계단 뛰어오르게 되었다.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계 조상에 따라 펼쳐진 백마-천산물길을 따라 흘러온 물이 농장원들을 시원하게 적시던 그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격정은 얼마나 컸던가. 물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해마다 농사를 안정되게 지을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으니 평양의 하늘을 우러러 환호성을 터치는 그들의 가슴에서는 쌀로써 어머니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맹세가 울려퍼졌다.

어머나수령님의 유훈을 빛내며 농장원들의 유훈을 받들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조창을, 김원혁동무들이 총렬협동농장에서 일군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 해도 농사가 시원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물보장이 어려운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나 물문제부터 풀어야 하였다. 일군들은 마을에서 오래동안 살아온 로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 삼교천을 따라 내려가는 물과 바다쪽에서 흘러드는 물을 리용하면 얼마든지 물문제를 풀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농장에서는 지체없이 물이

중국을 방문하였던 《로동신문》 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였던 김기복인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로동신문》 대표단이 7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흥황기 《로동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주체철기들을 쇠들로 떠받들리

지금 우리 생산일군들과 광부들의 가슴속에는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고있다. 지난 10월 27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생산일군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 격동적인 소식은 온 생산을 환희와 감격으로 뒤흔들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 30일 까지 년간 쇠생산계획을 깨뜨려 년간 수행할수 있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만도 뜨거운 사랑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의 두번째 해인 올해에 가서야 할 곳이 많고도 많지만 최전방전선전장을 현지지도하심에 이어 눈보라사나온 천리생년길을 헤쳐나오시 우리 생산을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수 없다. 우리가 체공장에 차있던 수십만㎡의 물을 한달동안에 다 퍼내고 기본체공장을 다 갖추었지만 체공설비가 모자라 안파우에 몸부림치던 때에 현대적인 착정기를 보내주시어 생산실황의 활로를 열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사연없는 착정기를 천공발파사업과 광물탐사까지

리용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설비보다 먼저 착정기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는 장군님의 신진지도를 다시금 탄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배짱과 신심을 안고 난초부터 드세한 공격전을 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명철처럼 간직한 우리는 김철의 호소에 한사탐각이 호응하여, 떨칠기 등 생선단위의 물을 한달동안에 다 퍼내고 기본체공장을 다 갖추었지만 체공설비가 모자라 안파우에 몸부림치던 때에 현대적인 착정기를 보내주시어 생산실황의 활로를 열어주신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사연없는 착정기를 천공발파사업과 광물탐사까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때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김철의 호소에 호응하여 우리 공장에서 2000년 65톤을 맞으며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훨씬 넘쳐 수행하였으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속에서 공장의 전투력은 날로 강화되고 집단적 혁신의 불길은 계속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와 같은 공장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하여금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이신작해나갈 때 대중을 더 힘차게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튼튼하고 유익한 생활을 마구잡이로 누려야 하겠다.》

김철의 호소에 접하였을 때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림 각오에

넘쳐 올해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훨씬 높이 세웠다. 현존력과 설비를 가지고 지난해보다 많은 생산성과를 이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심에 넘쳐 전투에 진입하였다.

우리는 생산성과가 높은 다른 피복공장의 경험을 배우기 위한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여러 단위를 돌아보며 많은것을 배운데 기초하여 공장의 초급일군들과 기술사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아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의제는 생산실황을 높일데 대한 문제, 여러 설비들을 현대화해조하거나 CNC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되었다. 토론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업도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종업원들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생산에 전념할수 있도록 생활사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는 생산성과가 높은 다른 피복공장의 경험을 배우기 위한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여러 단위를 돌아보며 많은것을 배운데 기초하여 공장의 초급일군들과 기술사들과 다시 한자리에 모여앉아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협의의제는 생산실황을 높일데 대한 문제, 여러 설비들을 현대화해조하거나 CNC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제기되었다. 토론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사업도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생산성과가 높은 다른 피복공장의 경험을 배우기 위한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종업원들에서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한편 생산에 전념할수 있도록 생활사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려왔다.

자력갱생모범공장, 이것은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알려진 우리 사리원애국수공업공장의 자랑스러운 칭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공장을 만반으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2000년도의 감과와 환회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계가 울려주고있다. 우리 공장에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대대건축물건설에 필요한 건설을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하여 생산해내었다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사리원에 건제기지를 꾸려놓았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다. 자제의 힘과 기술, 지방의 혼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낸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라고 그토록 만족하시며 분에 넘치는 지지를 주시였다.

우리는 그대 자력갱생만 이 살 길이 라고 하신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자력갱생하자, 그러면

있게 꾸리고 봉헌광구를 비롯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스키와 사별상의 능력확장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뿐만아니라 현대적인 착정기를 농동자와 같이 애용하고 기술자요원의 컴퓨터를 비롯하여 설비들의 기술개진, 현대화사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내밀어 시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 보내주신 은성년친필은 주체철기들을 쇠들로 떠받들려서 신심으로 분발해나신 우리들의 가슴속에 전설사관들의 의지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게 하였다.

우리는 승리광구를 전당성

김일 열리고 승리한다! 이런 혁명적의지와 신념을 지니고 전진해오면 우리는 해마다 공당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레도 우리는 김철의 호소대로 같은 원료, 같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인민 소비품을 만들어 줄것을 하나 만일에도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질 좋고 훌륭한것들을 내놓기 위한 열의를 지력갱생에서 찾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종업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며 자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충실하게 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집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서니 절망 못할 목표가 있었고 극복 못할 난관이 없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질 좋은 수지를 생산해나가기 위하여 자력갱생본보기단위의 영예를 변함없이 이룩할것을 다짐한다. —사리원애국수공업공장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에 대한 인공분사를 잘하여야 그들이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더욱 고매한 생각과 그 투쟁정열을 발휘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습니다.》

활발히 벌리는 이동치료활동
광강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도 인민병원의 안과 의료일군들은 도적인 범위에서 집중적인 이동치료활동을 적극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국삼, 리영일, 리남혁동무를 비롯한 안과 의료일군들은 수술에 필요한 수술기재와 광학기재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르네를 갖추어 그에게 의거하여 현지

자력갱생모범공장, 이것은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에 알려진 우리 사리원애국수공업공장의 자랑스러운 칭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공장을 만반으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2000년도의 감과와 환회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계가 울려주고있다. 우리 공장에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대대건축물건설에 필요한 건설을 우리의 원료와 기술에 의하여 생산해내었다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사리원에 건제기지를 꾸려놓았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다. 자제의 힘과 기술, 지방의 혼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낸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라고 그토록 만족하시며 분에 넘치는 지지를 주시였다.

우리는 그대 자력갱생만 이 살 길이 라고 하신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자력갱생하자, 그러면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김은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은 조국통일위업의 중요한 요구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실현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추동력으로 된다. 화해, 협력의 실현에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변영의 깊은 의미가 있다. 올해공동사업에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지금도 북남관계는 과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은 올해공동사업의 호소대로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 15통일사대의 전진을 추동하며 조국통일위업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틀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은 민족적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앞당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위업은 외세의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단합을 실현하는 전민족적위업이며 그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을 떠나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민족공동의 변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한결같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바라고있으며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단합하여 민족적화해와 협력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우리는 공동사업에 제시된대로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화를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다. 결과 민족의 명신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또다시 진행되어 온 겨레를 기쁘게 하고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갈수 있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실현해나가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원칙적요구이다.

북남관계문제는 외세에 의해서 생겨난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65년 동안이나 지속된 민족의 분열로 하여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한 차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있으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어찌까지나 외세의 민족분열력간객등과 같이 추종한 사대매국노들의 동족대결책동이 낳은 비극적후과이다. 우리 민족이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결한다면 언제가 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종당에는 서로 다른 민족으로 될수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할수 없게 된다. 반면엔 화해를 내러오며 단일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될수 없으며 민족성원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차이를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민족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된다.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북과 남이 다같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다.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6. 15통일사대의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었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융당한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있고있는것은 북과 남이 대화에 임하는 립장과 자세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때문이다.

우리의 립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하려는 립장이라면 남측의 립장은 외세와 야합하여 메일과 같이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벌여놓고있는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남측이 계속 지금과 같은 그릇된 립장에서 대화에 임한다면 북남사이의 대화는 좋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시간만 끌게 되며 나중에는 지난해와 같이 온 겨레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될것이다.

올해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기운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다. 6. 15공동선언발표 10년을 맞으며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선인들의 성실한 리행을

요구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화해와 협력,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은 이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각계 온 민들의 북과 남의 대화와 협력, 폐양과 접촉을 전면 차단하였을뿐아니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이 통일이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과소판압으로 대답해나갔다. 하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의로운 길에 나선인 사람들이 철창속에 갇히는 비극적사태가 초래되었다.

현실은 민족공동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한중도 못되는 쿠우보수세력의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북남대화를 독점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는 반동일세력이 누구인가를 응연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해외의 우리 겨레가 북남사이에서 동족대결의 씨를 뿌리며 반쪽과 불신을 조장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화와 북침전쟁발발의 위협을 불어오고 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도,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어떠한 긍정적인 제안도 실현될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란다면 화해와 협력사업에 부당한 조건과 구실을 걸고 폐방을 놓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변함없이 있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머리에 놓고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동해나가려는 진실한 립장에 선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손잡고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유익한 일을 해나갈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북남관계는 반드시 개선되게 될것이다.

최 철 순

대화방해군들의 위험한 도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남조선호전세력의 대결책동이 날로 더욱 무모해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미국이 조작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에 정식 가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외교통상부는 저들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혼란참여와 활동이 크게 강화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광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피뢰국방부는 미사일방위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가담을 시사하면서 그 누구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비하여 미국과 미사일방위체제에 관한 《정보공유와 수단운용 등을 론의하게 될것》이라고 공포하였다. 이것은 복침을 위한 외세와의 군사적공모결탁을 더한층 강화하는것으로서 대내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가입과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 가담책들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군사적대결의 극단으로 끌고가려는 쿠우보수세력의 고의적인 도발행위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라는것은 핵무기나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것의 의의》된다. 구실없이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투쟁한 나라의 신박들을 강제로 단속하고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조작된것이다. 여기에서 운영전문가그룹이라는것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에 가입하고는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의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정당화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정당화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정당화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얼마전 부산알바다에서는 남조선당국의 주도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봉쇄와 자주권침해를 노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관련 해상검열 및 차단행위를 발표적으로 벌여졌다. 남조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범죄적인 침략기구의 운영전문가그룹에까지 가입하였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무분별한 군사적도모에 서슴없이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 남 수

적극 가담해나가고있는것도 두말할것 없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청난 군사적도발이다. 호전관들이 마치도 그 누구의 《위협》때문에 미사일방위체제에 가담하는듯이 여론을 내몰려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군사적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조성하고있는 핵전쟁위협이다. 지금 내외호전세력이 조선반도《유사시》행위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의미인 이른바 《화적위협》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도 요란히 떠들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로 하여 북남사이에는 인도주의협력사업에 대한 일련의 대화와 접촉들이 잇달고고 흥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성사되었다.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와 성의있는 노력으로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울려퍼졌다. 이에 대해 내외의 온 겨레는 기대를 표시하고있다.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은 대세의 흐름이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의 쿠우보수세력들은 불안초조해하고있다. 대결에 명물을 건 그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두루룩한 것들을 대외의 막뒤에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운영전문가그룹에 가입하고 미사일방위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고있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정당화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정당화하는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저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과반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도발을 외면하면서 대결을 격화시키는 무모한 망동이 어떤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당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국 단체들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을 규탄

영국군정적연구협회, 영국국제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전쟁연습을 규탄하여 얼마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이 조선서해상에서 강행한 련합대습수행훈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침략전쟁연습이 올해에 들어와

그처럼없이 계속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리는 전쟁연습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천안》과 같은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한 모략극으로서 세계면전에 그 허위성이 날날이 드러났다. 최근 조선반도주변에서 연이어 벌어지

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전쟁연습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며 침략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전쟁연습들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성과 존엄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도주의사업에 가로놓인 장애물

앞으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사상상조소문제 가 결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들을 덮어놓고 외면하다 못해 금강산관광지의 정상운영을 비롯하여 상봉정상화를 위한 문제들과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 부당한 구실을 내대며 거부해나갔다. 이쪽과 말로는 인도주의문제를 풀자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를 물론 인도주의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반적인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의사가 없는 남조선당국의 속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지금 남조선의 전민족적기운은 모처럼 북남대화의 기회가 마련된 조건에서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성실한 대화화제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북남관계협력단체들은 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저해하는 《대북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선공정지구사업회의는 당국에 《대북선리전》제계계단과 체류원원제한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금강산관광지구 기업들의 모인인 금강산발전회의는 금강산관광단지에도 파산사태에 처한 자들에게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당국에 분노를 표시하였다. 50여개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북남관계를 계속 대결로 몰아가는 보수당국을 비난하면서 인도주의사업을 정치문제와 분리시달렸을 강력히 주장해나갔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북남공유협력사업을 현 《정권》에만 맡겨놓을수 없다고 하면서 인도주의적지원사업과 북남체육문화교류사업 등을 추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어 보수적인 종교계와 《한나라당》내부에서까지 당국에 《대북정책》 전환과 인도주의협력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바닷마을 남조선당국은 결코 《인도주의협력》이냐, 《대화》니 하는 타락을 늘어놓고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북남협력의 물고기를 퍼려는 온갖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있다.

악화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하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며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그러려면 뛰어나고도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 서로의 불신과 오해도 가시여지게 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 이루어질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변화》니 뭐니 하고 인도주의협력사업을 부당하게 정치와 결부시키고있으며 인도주의문제도 《핵문제의 전진과 관계할 수밖에 없다.》는 망발까지 하여놓고있다.

북남관계가 최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인도주의협력사업에 까지 부당한 전제조건을 달며 그의 활화화를 거부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되지 못할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인도주의협력사업을 저들의 불순한 목적수행에 약속할 뿐이며 현 대결국면의 해소를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인도주의협력은 물론 북남관계개선에 결정적인 장애로 되고있다.

남조선전면세력이 인도주의 협력사업들을 그 정선에 맞게 활성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를 취한다면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열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북 은 희

조선인간제련행자들에 대한 일제의 만행

남조선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의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일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선인간제련행자들이 당한 피해실태를 폭로하였다.

단체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문헌자료와 생존자들의 진술, 현장조사 등을 통해 1940년대 일본 흑기아도의 한 수력발전소 건설에 강제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시 일제의 《국책》사업으로 강행된 수력발전소건설현장은 생지옥과 다를 바 없었고 이곳에서 1000여명의 조선인들이 감금되어 노예적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제일 위험한 작업에 내몰았으며 감독과 같은 속수를 지어놓고 일을 할때마다 밖으로 나갈수 있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은 하루 13

시간이상 고된 로동에 시달렸으며 100명 이상이 한밤에서 지내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 작업중 구르는 항시적으로 반복되었고 물줄기하가 잠긴 사람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전인하게 처형되었다.

단체는 앞으로 흑기아도지역에서 조선인강제동원실태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확대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단죄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학교대표자 3700여명이 10월 28일 신언문을 발표하여 피뢰국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신언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교원들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징계를 시급히 마무리 하려고 책동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시험과 관련한 부당한 조치를 강행하려 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신언문은 만일 이것이 실현되면 학교들에서 혼란

교사단체들의 파쇼안 압책 동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생활화통일주변단체가 최근 《공안당국에 보안법을 람용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날 《보안법》위반 혐의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진우와 이전 핵심성원들인 최한욱, 김자경, 송현아의 집들을 강제수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미 실천연대조직사건으로 수색과 구속에 이르기까지 탄압을 당한 그들에게 당국이 또 다시 악법의 골매를 씌우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실천연대는 6. 15공동선언 발표이후 사회의 민주화실현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리행을 위해 활동중에는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라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앉아마자 실천연대가 리적단체로 몰리고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민주생활화통일주변단체들은 공안당국의 탄압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성명은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하여 전체 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북남대화의 활성화와 전반적인 북남관계개선의 고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내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리성 호

집권세력의 부정부패행위 폭로

1일 남조선의 야당인 민주당소속 《국회》의원들이 현 집권세력의 부정부패행위를 폭로하였다.

그들은 집권세력의 한 일가족속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운주식회사 사장으로부러 거액의 사채금을 받아먹은 사실을 밝혔다.

지금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 법무부 등이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며 부정부패행위를 비호두둔하고있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더우기 검찰당국이 그와 관련된 더 큰 부정부패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이전

【조선중앙통신】

군사분계선일대의 긴장한 정세

남조선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군사분계선일대에서도 다시 요란한 전쟁연습소동을 벌여왔다. 얼마전 피뢰북군 제1야전군사령부는 남조선강원도화대대에서 《2010 화대훈련》을 강행하였다. 그 누구의 《침투, 도발 및 테로상향》에 대처한 민, 관, 군, 경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번비》라는 명목밑에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 훈련에는 피뢰북해군군무력대 예비군, 행정기관, 경찰들의 1만 7000여 명이 동원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피뢰북군 제 6도병사단도 남조선강원도일대에서 대규모 동원력이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야구기동훈련을 벌여놓고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남조선군부가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위험한 도발소동에 광분하고있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그로 하여 군사분계선일대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다. 더우기 남조선호전관들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중상모해하는 비라살포행위에 계속 매여달리고 피뢰북상방관이 직접 나서서 라지오장파와 확성기추가설치, 새로운 대형전광판설치 등

반공화국성리도막전을 지휘하고있는 현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우리는 조성된 증정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 쌍방군부가 이미 이룩한 군사적합의의 리행문제를 론하는 북남군사적합의서를 가질것을 남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군당국은 우리의 회담제의를 합심침몰사건에 대한 그 무순 《책임있는 조치》와 북남군사적합의의 리행문제의 《불명확성》을 운운하며 회담제의를 거부하는 망동을 벌여왔다. 지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 정세가 극도로 달랐을때 때에 상대방의 회담제의를 거부해나선 때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조선군부세력은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포괄적으로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전제없는 도발적자세를 취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이미 북침전쟁연습의 초포성을 요란히 퍼쳐왔다. 더우기 호전관들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도록 하여 군사적합의의 리행문제를 운운하는 인도주의협력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명백한 반대외의 표시이며 북남협력사업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대화노력에 북침전쟁연습의 초포성으로 대답해나선 피뢰북부의 호전적망동은 남조선전면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을 분위기를 깨버리고 의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며 북침야망을 실현할 기회만 노리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었다.

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북남관계를 시급히 개선하는데 대한 내외연군의 목소리를 귀를 틀어막고 그 누구의 《변화 가 우선》이라는 어찌구무이는 소리만 되풀이하면서 대화에 성실히 응해나서지 않고있다. 남조선전면세력은 지어 인도주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있다. 《2010 화대훈련》과 야구기동훈련은 바로 이런 정세하에서 강행되었다.

력대로 남조선의 반동일세력은 북남사이의 대화 진행행 때마다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전쟁연습소동을 요란히 벌여 대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다시금 긴장시키곤 하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또다시 그 수법에 매달리고있다. 호전관들이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진행되고있는 금강산관광지구와 립접한 지역에서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인것은 인도주의협력과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명백한 반대외의 표시이며 북남협력사업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대화노력에 북침전쟁연습의 초포성으로 대답해나선 피뢰북부의 호전적망동은 남조선전면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을 분위기를 깨버리고 의세와 야합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며 북침야망을 실현할 기회만 노리고있다는것을 다시금 립증해주었다.

본사기자 송영 석

반인민적 악정을 반대

남조선의 《청년 전례일 40구서 행사위원회》의 주최로 10월 30일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다.

집회에는 민주로총, 참여연대, 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성원들 6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최근 남조선집권층내부에서 《핵문제해결》을 운운하는 소리를 연방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핵문제해결》이 없이는 《북남관계의 안정적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피뢰북동참모본부의 장이래자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최대불안정요인은 북의 핵문제》라고 떠들었다. 며칠전에는 남조선당국자까지 나서서 북남관계의 회복을 위하여는 《북의 비핵화가 첫걸음》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내뱉었다.

남조선전면세력이 핵문제를 입에 올리고있는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비핵, 개방, 3000》이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핵문제해결을 북남관계문제의 전결시면서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핵소동을 일으켜 강행하였다. 핵문제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순식간에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대결과 긴장상태는 극도로 고조되었다. 북남관계문제는 상관이 없는 핵문제를 억지로 북남관계와 결부시킨

가 갈등이 조성되고 사교유비가 늘어나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더 큰 부담이 들뜨어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신언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교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편향적인 대우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이 전례일행사를 추억하는 공원이 있었다.

한편 이날 민주로총은 비정규직폐로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조선중앙통신】

핵문제를 걸고 감행되는 대결소동

남조선당국의 고집스러운 망동은 사실상 북남관계개선의 시한을 넘겼다. 그런데 북남사이에서 일련의 대화와 접촉들이 판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되고있는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전쟁열을 고조하는 어찌구무이는 소동이 더욱 격화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북남대화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력대 남조선전진자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산물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강행한 이후 지난 60여년동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시종 일관 강행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이던 한자리의 침략전쟁을 도발한 장본인도 미국인이다. 그후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그 사용을 수시로 검토하면서 북침핵전쟁위협을 끊임없이 고조

시킨 범죄자도 바로 미국이다.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여러차례 기도에 사실상 약속을 폭로하는 미 행정부의 문서가 공개되어 내외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찬양한 남조선통치배들도 권력을 유지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적극 공모하고있다. 남조선이 북침을 위한 동등원인의 핵전초기지를 전략원 원인으로 바로 거기에 두고 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핵전쟁공격을 가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위험한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고있다.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때문에 지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 호

주체사상과 조선의 경제발전

여러 나라 신문이 글 게재

에리트신문 《알 마싸이아》 2일부가 《주체사상과 조선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지난 세기 말엽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를 기화로 더욱 약해진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극단적인 제재와 봉쇄, 편이은 자연재해로 하여 소생이 불가능하던 조선의 경제가 짧은 기간에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은 경제강국 실현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의 근본원인이 하나의 경제건설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데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고있다.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기술과 자원, 민족 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음을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경제토대를 새롭게 구축하여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특히 모든 경제 부문에서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건설이 철저히 나라의 자연에 의거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있다.

오늘날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는 사업 역시 나라의 자연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가 세계적 경제과동에 관계없이 무조건 융용을 하며 일떠서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16년에 즈음하여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트드》 10월 30일 부에 게재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중공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은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6년간은 조선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어온 나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날에 조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오늘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진인적대대군이 힘차게 벌이고있다.

동처에 새 세기에 어울리는 공작물이 편이로 일떠서고있으며 일터마다에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혁신적성공들이 이룩되고있다.

로지가 사회주의국가의 땅답대 대규모기화보전으로 정리되었으며 도시와 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인류의 고무적기치로 길이 빛날것이다.

메히요신문 《우나이다 나세오날》 10월 31일부가 《조선의 중대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에 발사장면사진과 함께 옹근 한편에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미대결에서의 편견론》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미대결에서의 조선의 편견론은 오랜 정쟁이 시작되었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창건된 조국, 2년도 채 안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발판을 확대하려는 야망에 일인적 전정이었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들의 특혜공군을 물론 15개 추종국 가군과 반세기 이상을 동맹한 200여만명의 병력을 들이밀었다. 미국의 전쟁력사이에 그처럼 방대한 병력과 군사비를 동원한 전쟁은 없었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이러한 강적과 맞서 신화를 창조하였다. 자기의 자위력과 존엄을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뒤는 참패를 안기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조미사이의 끊임없는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미국은 언제나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1960년대의 미국우장군 첩선 《투에블로》 호사건과 대항간첩비행기 《EC-121》 사건때에도,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과 거의 해마다 벌어진 《텔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때에도 미국은 항공포함파 핵무력까지 긴급출동시켜놓고 조선을 골목거리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가 제풀에 물러가고만것은 매년 미국이었다.

조미사이의 핵대결에서도 미국은 조선의 강력한 군사적힘과 무비의 담백앞에서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남조선의 《천안》 호침몰사건을 조선과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고갔지만 세계앞에서 비렬한 조국구, 모략극을 꾸미었다는 수치와 망신만을 당하고말았다.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바로 1998년 8월 100% 국산화된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였다.

《봉피》 원단인 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솟아오른것은 세계를 놀래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세계는 지난 10여년간 조선의 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면들을 놓고 강성대국건설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기어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할것이다.

상투적인 《위협》라령에 숨겨진 흉심

일본에 아주 나쁜 악습이 있다. 그중 하나가 남을 물고늘어지면서 제 리속을 차리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수상 칸 나오토는 특상 《자위대》 열병식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의 《위협》에 대해 운운하면서 《각이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었다.

그 누구의 《위협》을 결코 판장을 보려 하는것은 일본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금까지 세계는 그런 허무맹랑한 타령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다. 일본본토의 이번 협담은 지난 시기 떠벌어온 판에 박힌 《위협》 타령의 연속이다.

일본이 자주 늘어놓는 우리 나라와 중국의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논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주변나라들이 하는 정상적인 일들을 놓고 일본은 색안경을 끼고 대하면서 거짓말한 《위협》이라고 물고늘어지게 때문이다.

원래 위협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것이 아니다. 안전보장면에서 협박이나 침략을 당할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일본은 무리대로 위협이란 보기를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에 함부로 뒤집어씌우고 있다.

위협문제에 대하여 논한다면 오히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이 더 할 말이 많다.

20세기 전반기만 놓고보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그없는 중국대륙을 가로타고있던 침략국가이다. 일제패망후 일본집권세력은 대미추동에 환장이 된 나머지 일본이라는 땅덩어리를 총체로 미국의 아시아침략의 핵전초기지로, 전방기지로 내몰았다. 오늘 일본과 가까운 조선반도주변에서 남조선강점 미군과 주일미군이 참가하는 핵전쟁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여기에 일본 《자위대》가 기여하여 맞장구를 치고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핵위협을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히 실증해주고있다. 어느모로 따져보나 동북아시아에 핵전쟁상태가 조성되고 위협이 증대되고있는 것은 일본에 그 주요한 책임이 있다.

일본이 떠드는 허무맹랑한 그 누구의 《위협》 타령에는 위협한 흉심이 숨겨져있다. 그것은 일본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온 군사대국화,

제침책동에 보다 더 큰 박차를 가하는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고서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외교 및 안전보장장소사회는 회의를 열고 모든 무기와 관련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무기수출3원칙》 완화문제가 올해말에 책정되게 될 정부의 새 《방위계획대강》에 담겨진다고 한다.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려는 목적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열강들과도 무기기술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여 《자위대》의 군사력을 보다 증강하고 군사적해방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제침책동이 매우 엄중한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집권자가 운운한 《각이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준비》란 바로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자위대》에 미해병대와 같은 기동타격부대를 내오려는 시도도 그러한 《준비》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위협한 군사대국화, 제침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당국자들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요란하게 떠벌고있는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중국과의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대중국경쟁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고있다. 문제는 일본당국자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성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저들이 제창하는 그 누구의 허구적인 《위협》설의 선봉성을 보여주는 한편 일본국민들을 아시아에 대한 제침책동의 틀레대로 효과적 거역이라는 속신이 깔려있다.

일본당국자들이 군사대국화와 제침책동을 실현하려는 흉심을 품고 캐케묵은 《위협》 타령을 끈질기게 늘어놓고있지만 거기에 속을 사람은 새세계 어디에도 없었을것이다. 그것은 어쩌려 위험한 침략세력, 전쟁국가로서의 일본의 추악한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보여준것이다.

일본은 자기가 하는 길이 침투침탈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 경 수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고있다.

또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기술과 자원, 민족 간부와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음을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경제토대를 새롭게 구축하여 21세기의 요구에 맞는 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이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특히 모든 경제 부문에서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건설이 철저히 나라의 자연에 의거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있다.

오늘날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는 사업 역시 나라의 자연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가 세계적 경제과동에 관계없이 무조건 융용을 하며 일떠서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16년에 즈음하여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트드》 10월 30일 부에 게재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중공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은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6년간은 조선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어온 나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날에 조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오늘 조선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진인적대대군이 힘차게 벌이고있다.

동처에 새 세기에 어울리는 공작물이 편이로 일떠서고있으며 일터마다에서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혁신적성공들이 이룩되고있다.

로지가 사회주의국가의 땅답대 대규모기화보전으로 정리되었으며 도시와 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인류의 고무적기치로 길이 빛날것이다.

메히요신문 《우나이다 나세오날》 10월 31일부가 《조선의 중대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에 발사장면사진과 함께 옹근 한편에 게재하였다.

신문은 《조미대결에서의 편견론》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미대결에서의 조선의 편견론은 오랜 정쟁이 시작되었다. 조선전쟁은 미국이 창건된 조국, 2년도 채 안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발판을 확대하려는 야망에 일인적 전정이었다.

미국은 이 전쟁에 자들의 특혜공군을 물론 15개 추종국 가군과 반세기 이상을 동맹한 200여만명의 병력을 들이밀었다. 미국의 전쟁력사이에 그처럼 방대한 병력과 군사비를 동원한 전쟁은 없었다.

하지만 조선인민은 이러한 강적과 맞서 신화를 창조하였다. 자기의 자위력과 존엄을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뒤는 참패를 안기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조미사이의 끊임없는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미국은 언제나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1960년대의 미국우장군 첩선 《투에블로》 호사건과 대항간첩비행기 《EC-121》 사건때에도,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과 거의 해마다 벌어진 《텔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때에도 미국은 항공포함파 핵무력까지 긴급출동시켜놓고 조선을 골목거리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 사회주의가 제풀에 물러가고만것은 매년 미국이었다.

조미사이의 핵대결에서도 미국은 조선의 강력한 군사적힘과 무비의 담백앞에서 수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하였다.

최근에도 미국은 남조선의 《천안》 호침몰사건을 조선과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몰고갔지만 세계앞에서 비렬한 조국구, 모략극을 꾸미었다는 수치와 망신만을 당하고말았다.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바로 1998년 8월 100% 국산화된 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과적발사였다.

《봉피》 원단인 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솟아오른것은 세계를 놀래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세계는 지난 10여년간 조선의 경제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면들을 놓고 강성대국건설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조선인민은 기어이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건설하고자 할것이다.

노력할 립장 표명

틀어치고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빈국청산과 관련한 국가예산과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도록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빈국청산을 위해

브라질대통령당선자 딜마 바나 로우페르가 2일 한때비 존방총과의 회견에서 빈국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새 정부가 빈국청산 사업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외국군대주둔 배격

이란군 해군사령관이 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외국군대주둔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외국군대의 주둔이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군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 계속 감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대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 와지리스탄지역 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미사일공격을 가함으로 6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세계적으로 현재 6초당 1명의 어린이가 기아에 시달리던 끝에 목숨을 잃고 있다.

기아로 인한 세계 어린이들의 인명피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총국장이 유엔발언을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합 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2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며 호상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콜롬비아대통령의 베네수엘라방문과정에 이러한 합의가 이룩되었다.

원유생산 증대

수리에서 올해 첫 9개월 동안에 1 057억 4 900만 bbl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이 기간 하루평균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 825 bbl 늘었다.

1일 이 나라의 사나통신이 이에 대해 밝혔다.

수출 증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첫 9개월 동안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27% 증가되었다. 1일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케냐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33만 6 600의 차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 9 800t 더 많은것

이라고 한다.

태양열발전소건설 계획

남아프리카 정부가 북극에 이르러 큰 규모의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정부는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을 2012년에는 100만 kW, 2020년전으로는 500만kW에 달하게 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현재 발전소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사회주의건설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을것이다

쿠바국가리사회 위원장 언명

쿠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수상인 라울 카스트로가 1일 근로자중앙 전국위원회 전원회의 폐막회에서 연설하면서 쿠바는 경제의 현대화과정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길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쿠바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앞장 서나가고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중앙의 간부들은 경제 발전에서 나서는 원칙들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그것은 혁명을 추동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로동계급은 지식 을 소유해야 하며 혁명발전에서 노는 자기의 중요성을 확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바나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대외정책과 제재책동 규탄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부당한 대외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살정책은 의연 변함없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그러나 이란은 국가의 리익에 맞게 평화적책동 발목을 끝까지 달성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불공평한 대외정책을 철회하고 다른 나라

들의 권리를 존중할것을 요구 하였다.

▲수단의무성 대변인이 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침요한 제재책동을 규탄하였다.

최근 미행정부가 수단에 대한 제재조치실시기한을 1년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사실상 미국은 수단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려는 정치적인지를 가지고있지 않다고 까맣혔다.

수단은 지난 20여년동안 미국의 부당한 제재를 받아왔다 고 하면서 그는 자기 나라 정부가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책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콜레라 피해

○나이제리아에서 콜레라가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만 8 170여명의 콜레라환자가 등록되었으며 그중 1 555명이 사망하였다.

피해가 심한 곳은 콜레라우, 소코로, 폼페주들이다.

○우간다의 동북부지역에서

최고 콜레라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있다.

10월 26일 이 나라 보건성은 지난 한주일동안에 103명의 콜레라환자가 등록되고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지진과 큰물, 산사태 등 각종 자연재해로 23만 6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피해자수는 2억 5 600만명에 달한다. 최근 유엔이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얼마전에 열린 유엔 총회 제 65차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부패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가 압도적다수결로 채택되었다.

유엔총회연단에 나선 각국의 대표들은 유엔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미국의 오만한고파렴치한 처사에 격분 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반부패법철회를 하루 빨리 철회할때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다.

중국대표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조치는 유엔헌장의 원칙에 엄중히 위반되는것으로서 쿠바의 정상적인 상급 및 무역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있으며 쿠바인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베네수엘라대표는 지난 수십년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의 반부패법 철회는 국제법에 대한 반목한 위반으로, 잔인한 범죄행위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카리브공통체를 대표하여 연설한 바하마대표는 미국의 봉쇄

목적으로 쿠바인민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서 정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고 단호하면서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체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이며 부당한 반부패법철회는 주권국가에 대한 자주권침해이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반목한 위반이다. 1959년 1월 14일혁명승리후부터 장기간 감행되어오고있는 미국의 악랄한 반부패법철회는 반제국주의, 사회주의적외로 나가는 쿠바를 고립, 말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부파압살을 놓고 미국이 고안해낸 각종 악담들과 제도적복음들은 오히려이다.

몇가지만 보자. 현재 미국은 국내의 19개 방송국에서 30개의 주파수로 매주 도합 2 000여시간의 반부패방송을 하고있다.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는 미국의 방송모략공세의 주되는 화살은 쿠바에서 인민심혼파과 제도적복음에 집중되고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에서는 1976년 10월 6일 쿠바혁명 17주년을 맞아 73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악명높은 테로범인 보사다 카릴레오가 거리를 활보하고있다.

의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 이지는 미국이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테로와 진보적지도자들을 암살할

공정한 세계여론이 대량학살이라고 평하고있는 수십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경제, 금융, 상업봉쇄조치로 하여 쿠바가 입은 손실액은 7 500억 US\$를 통가한다.

그러나 미국의 그 어떤 반부패법도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인하고있는 쿠바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쿠바인민은 미국의 악랄한 반부패법철회를 결심마다 깃부시며 자기 선택한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며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지난 4월 쿠바에서는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반부패법철회의 비방중상과 음모배척에도 불구하고 동북부선 선거자수의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그대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의도와 정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굳건히 지켜가려는 쿠바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오고있는 미국의 범죄적인 대부파압살책동은 오히려 쿠바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편대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부패법철회를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적운동이 활발해지고있다.

제19차 아메로-아메리카 수뇌자회의에서는 미국의 반부패법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빈국청산을 위해 노력할 립장 표명

브라질대통령당선자 딜마 바나 로우페르가 2일 한때비 존방총과의 회견에서 빈국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새 정부가 빈국청산 사업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외국군대주둔 배격

이란군 해군사령관이 1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지역에 대한 외국군대주둔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외국군대의 주둔이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압당한 현실

일본에서 9월에 실업자수가 8월에 비해 3만명 더늘어나 340만명에 달하였다. 10월 29일 이 나라 총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요 일자리축감사태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3일 이 나라 정부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0월에 전국적으로 6만 8 2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업률은 9월에 비해 1.7% 증대되었다.

한편 에스파냐에서 3.4분 주에서 2일 4건의 마약수

달로 강화되는 반제련대성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대통령은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하지 못한것은 일본이 자들의 인기를 늘려서가 아니라 날씨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은 남세조전이란이 범법하고도 각국방위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남부쿠릴레도를 방문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일본정부들은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에 대한 로씨야의 강경한 립장을 《희에 치나지 않는다.》고 파소평하였다.

그들은 남세는 한강 구공이고 로씨야가 자들의 외교정책에 놀리워 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을 취소하겠다고 속단하였다. 더욱이 중일선협정문건으로 고충을 겪고있던 일본에서는 메드베제브레대통령의 남부쿠릴레도방문문제가 다행스러운것이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의 도쿄지국장들은 중일외교선의 최대정점으로 된 일본은 중일선협정문건을 두고 《의지의 싸움에서 일본이 굴욕적으로 퇴각》한것이라고 수훈을 거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분쟁지역에 대한 로씨야대통령의 방문문제를 일중외교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한 기회로, 자들의 인기를 끌어올릴수 있는 주제장으로 간주하였다. 한 언론이